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호응' 남원시, 명지호텔 상량식 개최

임실군, 기업·기관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현장 기부 이벤트 등 진행

임실군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기부 참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올해 여러 기관과 기업을 직접 방문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현장 중심 홍보를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19일 국민연금공단 본부, 27일에는 (주)한국종합기술 사옥에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임실군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기부 참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홍보는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절차, 세제 혜택과 기부금 활용 분야 등을 자세히 안내했으며, 리플릿 배부와 답례품 전시를 함께 진행해 현장 관심을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현장 기부 이벤트도 병행하여 참여율을 크게 높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임실군과 상생 지매결연을 체결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한국종합기술 또한 임실군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의미를 더했다.

임실군은 올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지역축제 현장, 전복도청·기관방문 홍보, 온라인콘텐츠 제작, 답례품 안내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층적 홍보전략을 펼쳐 제도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답례품인 임실N치즈·요거트에 대한 20% 할인 제공으로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는 임실군 홍보담당관 고향사랑팀(063-640-4924)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찾아가는 기부제를 통해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일차기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식 가져

순창군, 목송산업개발 소속 광주광역시 내 40개 아파트 단체와 체결

순창군은 지난 3일 청년문화센터에서 목송산업개발 소속 광주광역시 내 40개 아파트 단체와 함께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사업의 배경과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순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민의 생활 체류를 확대하고, 농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도해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강천산과 강천힐링스파 등 주요 관광지를 직접 둘러보는 '순창 투어'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명식 목송그룹 회장의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직장공감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와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간의 MOU 체결도 이뤄져, 지역 간 지속적인 우호 증진과 연대를 위한 상생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응원하며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에 2차로 전달했다.

순창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성황리 개최

순창군 장애인체육의 성과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리는 2025 순창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이 4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장애를 넘어선 투지를 보여준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자리였다.

순창군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



자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군의장 등 내빈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활기찬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빛나는 성과를 거둔 개인

과 단체에 대한 격려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종목상과 최우수선수상, 지도상, 봉사상, 공로상 등 총 11개 분야에 걸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최우수종목상에는 육상 종목이, 우수종목상은 사격이 받았으며, 최우수선수상에는 육상 장동수 선수, 우수선수상은 수영 전해철 선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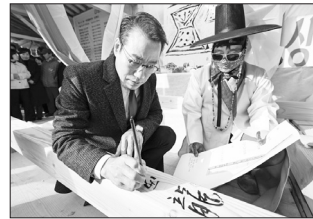
특히, 학생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 시상이 진행되어, 꿈나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며 감동을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옥전통호텔 조성... 내년 4월 개관 목표로 마감 공사 돌입

남원시는 지난 3일,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할 한옥전통호텔 '명지호텔'의 상량식 개최를 알리며,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마감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상량식(上樑式)은 골조 공사 완료 후 가장 높은 곳에 마룻대를 올리며 무사 준공과 더불어 집안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으로, 이번 상량식은 관리동에서 진행됐다.

명지호텔은 대지면적 2,000㎡에 연면적 455㎡에 6객실 규모의 전통호텔로, 남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지역 고유의 멋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여 지은 뒤 운영은 민간위탁(사용수익허가자) 공모방식으로 25년 12월 말에 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관광투원 일대를 중심으로 기존 예천과 명지각을 조성한데 이어 명지호텔을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한옥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명지호텔 탄생은 지역 관광 인프라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지호텔의 탄생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건물의 무사 준공을 기원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날 상량문은 건물의 영원한 보존과 거주자의 복을 기원하는 문구로 마룻대 양쪽에는 '용(龍)자'와 '귀(龜)자'를 쓰고, 올리는 날짜와 축원 문장을 적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이 직접 상량문을 작성해 명지호텔의 성공적인 완공과 번영을 기원했고, 소리꾼의 상당 소리에 맞춰 상량문이 적힌 마룻대가 울려지며 고사가 마무리됐다.

명지호텔은 사업비 총 57억 원을 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예산 심사 진행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종열)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손종열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종류농약대전의 미흡한 점 개선과 단체전 진행으로 많은 농약 단위에 남원에 체류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오창숙 부위원장은 노인목욕비 지원 카드의 잔액과 사용 가능기간을 어르신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문화 교류 행사 시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말고 효과성 검토를 통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이명선 위원은 필수복지사업에 산을 줄이면서 시 살림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라며 복지사업은 줄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6년 원예·과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원시는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원시에 추수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6년 원예·과수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 총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약 79억원이며, 원예분야 18개 사업에 56억 원, 과수분야 13개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접수는 사업 예정지 해당 읍면동에서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2026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순창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 40명을 모집한다.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10명, 시간제 12명) △복합형 일자리(12명)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 인안마사 파견 4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업무가 '특화형 일자리'로 신설되어 수행기관을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합성과 근속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으로,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본인의 능력 발휘 기회를 제공해 가정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이라며 "군 내 등록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5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임실군이 지난 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양성평등기반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따른 법령의무교육으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젠더심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쉬운 사례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올바른 이해와 대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심 민 군수는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